Eugene's FICC Up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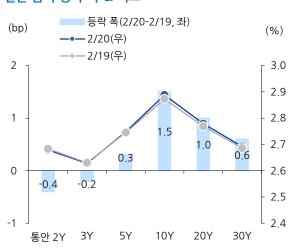




Fixed Income 김지나 02)368-6149 inkim0526@eugenefn.com Economist 이정훈 02)368-6138 ihoonlee@eugenefn.com RA 유재혁 02)368-6177 dbwogur170@ eugenefn.com

Fixed Income (단위: %,bp, 틱)						
		2/20일	1D	1W	YTD	
국내채권	한국 국고채 3년물	2.628%	-0.2	-0.3	3.2	
	한국 국고채 10년물	2.888%	1.5	1.6	3.3	
	장단기금리차(10년-3년,bp)	26.0	24.3	24.1	25.9	
	3년 국채 선물(KTB)	106.63	0.0	-4.0	-2.0	
	10년 국채선물(LKTB)	117.98	-9.0	-1.0	106.0	
-1101	미국채 2년물	4.268%	-0.2	-8.4	2.8	
	미국채 10년물	4.505%	-2.9	-12.1	-8.0	
해외 채권	장단기금리차(10년-2년,bp)	23.7	26.4	27.4	34.6	
THE	독일국채 10년물	2.535%	-2.1	11.6	17.1	
	호주국채 10년물	4 528%	0.1	56	160	

일간 금리 등락 폭 & 커브



외국인 3년 국채선물(KTB) 수급



국내 채권시장 동향

- 국내 채권시장 혼조세 마감
- 전일 1월 FOMC 회의록에서 QT 일시중단 언급되며 미국채 강세 보였음에도 국고채는 장 초반 약보합
- 이후 2월 금통위 인하 기대감을 바탕으로 단기물은 강 세를 보였으나 움직임이 크지는 않았음. 외국인 10년 국채선물 매도로 장기물은 장 중 약세 전환
- 야당, 장마감 후 열릴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앞두 고 추경 편성 결단에 대한 강한 의지 보인 점도 일 부 부담으로 작용

외국인 10년 국채선물(LKTB) 수급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
- 베센트, 인플레이션이 높으며 연준 QT가 지속되는만큼 장기물 발행 확대는 아직 멀었다는 입장. 이에 장기물 중심 금리 하락
- 실업수당청구건수는 예상 및 이전치를 상회하여 미국채 강세 흐름에 힘을 보탬
- 애틀랜타 연은 총재, 향후 전망 불확실성 속 금년 중 두 차례 인하를 예상.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연준 통화 정책은 적당히 제약적이어야 함을 언급



FX & Commodity (단위: %, \$)						
		2/20일	1D	1W	YTD	
	원/달러	1,437.90	-0.0%	-0.7%	-2.3%	
	달러지수	106.35	-0.8%	-0.7%	-1.9%	
	달러/유로	1,050	0.7%	0.4%	1.4%	
환율	위안/달러(역외)	7,24	-0.7%	-0.5%	-1.4%	
	엔/달러	149.66	-1.2%	-2.0%	-4.7%	
	달러/파운드	1,267	0.7%	0.9%	1.2%	
	헤알/달러	5.70	-0.3%	-1.1%	-7.8%	
	WTI 근월물(\$)	72.57	0.4%	1.7%	1.2%	
상품	금 현물(\$)	2,937.97	0.1%	0.3%	11.9%	
	구리 3개월물(\$)	9,558.00	1.0%	0.8%	9.0%	

원달러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



원달러 환율 및 이동평균선



원달러 환율 동향

- 달러-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0.60원 하락한 1,437.90원에 마감. 야간거래에서는 1,435.50원 마감.
- 간밤 달러 가치 상승을 반영해 달러-원은 +3.10원 상승 출발. 개장 전 트럼프 대통령이 차량 및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다음 달이나 그 보다 먼저 발표할 것이라 발언.
- 그러나 달러-원은 장 초반을 고점으로 상승폭이 더 확대되지 않았음. 아시아 통화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음. 장중 달러-엔은 간밤 미국 QT 중단 기대 및 BOJ 금리 인상 예상 속에 한 때 150을 하회했고, 점심 무렵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협상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자 위안화도 강세.

원달러 환율 상대강도지수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 달러 인덱스는 베센트 재무 장관 발언과 지표 부진 속 하락.
- 간밤 베센트 재무 장관은 장기물 비중 확대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평가했으며, 현재 달러는 관세 영향을 일부 반영했다고 발언.
- 베센트 재무장관 발언과 함께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다소 커지면서 달러는 미국채 금리와 동반 하락. 월마 트는 실적 발표는 양호했으나, 향후 가이던스를 하향하 면서 소비 우려가 지속.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전주 대비 증가.
- 한편 연준 인사들은 일제히 인플레이션 경로에 대한 우 려를 표하면서 신중한 접근 방식을 강조.